

# 한국전쟁기 전북 지역 매체와 문학

—『전북일보』를 중심으로

최명표\*

차례

1. 서론
2. 전쟁 담론의 생산과 전쟁문학의 성과
  - 2.1. 전쟁 담론의 생산 유형
  - 2.2. 전북 지역의 종군문학
  - 2.3. 지역 작가들의 문학 활동
3. 결론

## 1. 서론

1950년대 문학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그 동안 연구자들이 전후의 사회현상을 취급한 문학작품들에 주목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제출한 이유인즉, 전쟁의 문학적 수용 양상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문학사를 기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숙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연구상의 선후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후일 담에 속하는 전후의 문학적 성과를 정리하기에 앞서, 전쟁 중의 문학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온당하였다. 그들은 전쟁 관련 자료를 수습하고

\* 전주교육대학교 강사

정리하여 분류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외면하여 시기상의 잇점을 포기하는 대신, 전후에 문자로 제출된 문학작품만 텍스트로 인정하는 편리를 추구했다. 그들의 편의적 태도는 전쟁 문학의 일차 자료들이 유실되는 과오로 이어졌다. 지금에 와서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품을 들이고 있으나, 벌써 휴전된 지 50여년이 흘러서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선행 연구자들이 자료의 수집과 축적에 관심을 기울였다더라면, 관련 자료를 구하기 힘든 현단계의 고충은 상당량 덜어졌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전쟁 문학 연구가 종군작가 또는 종군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도 비판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종군작가들에게 한 지역은 일시적으로 체류했던 피란지이거나 경유지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들은 과객에 불과하므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조건과 정서를 온전하게 포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들이 발표한 작품에 이분법적 대립 구도와 관념적 요소가 분출하는 사정도 그로부터 기원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문학현상은 구체적으로 포착될 수 없었다. 지역은 거주하는 작가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일상을 경험하는 역사적 공간이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은 종군작가들의 것보다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작가들은 지역 매체에 의지하여 작품 활동을 하기 마련이고, 전쟁 중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전쟁기에 간행된 매체를 이용하여 그들의 문학적 행정을 복원하는 작업은 유의미하다. 그것은 문단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지역의 작가들을 억압하고 문단의 전면을 차지한 명망가들에게 배분된 과분한 권력을 적량화하고, 문학사의 이면으로 밀려난 지역 작가들의 신분을 복권하여 종군작가 중심의 왜곡된 문학사를 바로잡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역 문학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내면화한 지역 작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문학 연구에서 매체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다. 더욱이 “전쟁기뿐만 아니라 전전기와 전후기까지 아우르는 문학 매체 전반에 대한 발굴과 그를 바탕으로 삼은 문학 사회의 동향에 대한 새로운 사실 확

인, 온전한 정보 갈무리가 필수적인 일”<sup>1)</sup>이라면, 지역 매체와 문학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일은 더 이상 미루어 둘 형편이 아니다.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사적 사건을 다루는 문학 연구일수록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에 토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특히 지역사회는 학연과 지연 등으로 구속되어 있어서 주관적 평언은 물론, 학문적 성과조차 훼손되기 십상이다. 이런 경우에 신문이나 잡지 자료 등의 매체는 생리적으로 증언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전쟁 상황과 문학 현상을 적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매체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념전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문학 연구의 일차자료로 중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쟁 중의 매체는 불가피하게 당국의 논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정간과 휴간 등 발행상의 갖가지 사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라북도 지역의 신문 매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지역의 신문들은 제호나 사주의 잦은 변경, 발간 지역의 이동, 정치적 사태로 인한 타의적 통합 등과 맞물려 복잡하게 변천하였다. 을유 해방을 맞아 전라북도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建國時報』를 발간하였다. 1945년 8월 18일 전주에서 창간된 이 신문은 잔류하고 있던 일본군의 압력으로 3호를 발간하고 중단되었다. 그 후 9월 12일에 윤전기를 재가동하여 발행하는 중에 10월 10일 제호를 『全北民報』로 변경하였고, 11월 11일에는 제호를 『南鮮民報』로 다시 바꾸었다가, 1946년 1월 3일 제호를 『全羅民報』로 바꾸었다. 이 해에 『全北新聞』(6월), 『全州日報』(7월)가 잇따라 창간되었다. 『全羅民報』는 전라북도 기관지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제호를 『全羅新報』로 고쳤다가, 1949년 12월에 민간 사업자에게 환원되었다. 그러던 중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全北日報』, 『全州日報』, 『全羅新報』는 『全北時報』로 통합된 후에 일시적으로 발행을 중단하였다. 9·28 서울 수복 이후에 속간되면서 『全北時報』는 10월 10일 『全北日報』로 제호를 변경

1) 박태일, 「목포지역 정훈 매체 「정훈」 연구—한국전쟁기 정훈문학 연구 1」,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집, 2009. 9, 214쪽.

하였다.<sup>2)</sup>

본고는 이 시기에 발행된 『全北日報』를 이용하여 전쟁기의 문학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분석 대상은 1950년 10월 10일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전북일보』가 해당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전쟁기에 발행된 『전북일보』의 전량을 입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 지역의 신문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발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수시로 종간 또는 제호를 변경하느라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데 있다. 일례로 『전북일보』의 경우, 본사의 자료실보다는 전북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분량이 많다. 또 『전북일보』는 지금까지 기간 신문의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컴퓨터를 활용한 기자들의 기사 작성이 일반화되면서 최근치 신문만 전산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연구자가 입수한 자료는 1952년 5월부터 12월까지에 한정되어 있다. 그마저 대상 기간의 전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고는 태생적으로 일정한 결함을 안고 출발한다.

## 2. 전쟁 담론의 생산과 전쟁 문학의 성과

### 2.1. 전쟁 담론의 생산 유형

국군은 1950년 11월 25일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후퇴를 거듭하였다. 국군은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삼척에 이르는 전선까지 남하했다가 현재의 휴전선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전쟁이 소위 ‘철의 삼각지대’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면서 진척을 보이지 않자, 미국을 위시한 국제연합의 참전국들은 휴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전선의 확대와 전쟁 기간의 연장 문제에 민감히

2) 이 부분은 『전북학 연구 (III)』(전라북도, 1997)의 ‘제2절 전북 언론계의 현황’ 중 ‘1. 전북 지방 신문(398쪽)에서 요약 인용

반응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난국을 극복할 역량이 부족한 까닭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 측의 의도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국내적으로는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 도래하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의 순조로운 추진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런 정치 상황은 확전과 휴전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정부로서는 국론의 분열을 방지하면서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전선은 1951년 6월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정부는 국민이 긴장감을 이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쟁 담론을 생산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전후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쟁 담론은 후방의 전쟁 상황을 반영하며 생산되었다. 1952년에 발간된 『전북일보』에 게재된 전쟁 담론은 대략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을 통한 공식 담론의 확산이다. 당시에 『전북일보』는 2면을 발행하고 있었다. 신문의 편집은 매우 단조하였다. 1면은 통신사에서 제공한 국내외 정세 기사, 2면은 순전히 전라북도 지역의 기사를 배정하였다. 이것은 서울에 주재하던 기자가 적거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서울에 주재했다고 하더라도 전시에는 당국에 의한 언론의 통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각 부처와 유관기관을 출입하며 기사를 취재하는 일은 만만찮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 시절은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고 사용도 제한적이어서, 관인 통신사에 의한 기사 독점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 형편보다,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 의한 편집 방식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한 예로 통신 기사로 채워진 『전북일보』의 1952년 9월 25일자 1면은 거의 전면에 걸쳐 전쟁 관련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기사의 편집에서도 전쟁 관련 내용은 독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우상단과 상중앙 그리고 중앙부에 진한 활자로 배치하였다. 3개의 사진 기사는 모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아이젠하워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스티븐슨, 미국 합참의장 브래트리의 사진이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전라북도 지역의 전쟁 담론은 지리산에 은거하던 빨치산과의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후방에 속하는 전북 지역은 전방의 격전 상황과 달리, 대체적으로 질서를 회복한 상태였다. 당시 『전북일보』는 전주 시내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광고와 함께 영화평<sup>3)</sup>, 각종 체육 행사<sup>4)</sup> 등을 전하고 있다. 전주를 위시한 도시 지역의 평온한 상황은 도민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회복하기에 적합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 시국이라는 특수성을 방각하고 긴장감을 상실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사실 도시의 사정과는 판이하게, 산간 지역에서는 미처 월북하지 못한 인민군의 잔당들이 국군과 경찰을 상대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문산에 남부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빨치산’ 투쟁을 통해 게릴라식 전투를 기도하였다. 그들과 달리 퇴각하는 인민군의 대열에서 낙오한 일부의 병사들은 공비가 되어 민가를 습격하는 일이 잦았다. 양자의 위협은 전북 지역에서 교전 국면이 지속되도록 조장하였고, 도처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이런 전황을 1952년 9월 한 달 동안 발행되었던 『전북일보』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射殺 49 牛捕 11 名—全北警備司令部 35 日間 綜合 戰果」, 9. 3

「多數 共匪 來襲을 擊退—有功 警察·特動隊員에 特進」, 9. 4

「暴雨中에 肉搏戰—敵 3 名 射殺 等 南原 朱川 支署에 大戰果」, 9. 4

「高敞面 大委員長 射殺—高敞 警察에 거둬 戰果」, 9. 4

- 3) 1952년 『전북일보』에 게재된 영화평은 아사, 「『惡夜』를 보고」(6. 5), 鄭飛石, 「영화의 예술성—人生의 黃昏을 보고」(6. 24), 素影, 「永遠한 倫理性—영화 『悲愁』를 보고」(7. 22), 素影, 「不滅의 民族鼓事詩—『아라곤』을 보고」(9. 17), 「色彩 映畫의 成功—분홍신 이 보여준 境地」(9. 23), 金炳沂, 「偉大한 抵抗의 作家—롯데리의 作品을 보고」(9. 28), 影生, 「悲慘과 絶望의 世界—『자전거도복』을 보고」(10. 3), 金宗煥, 「映畫時評—52年度 韓國 映畫를 中心으로 (상)」(12. 21), 金宗煥, 「映畫時評—52年度 韓國 映畫를 中心으로 (중)」(12. 23), 金宗煥, 「映畫時評—52年度 韓國 映畫를 中心으로 (하)」(12. 24) 등이다.
- 4) 1952년 9월 한 달간 『전북일보』에 소개된 체육 행사는 ‘群山市場 씨름大會 大盛況」(9. 3), ‘光州 跆拳道會社 全北팀 快勝」(9. 11), ‘湖南 籠球大會 盛況 豫想」(9. 11), ‘全北 男女中高等學校 陸上 競技 및 一般 選手權大會 今日 兩日 開催」(9. 28), ‘龍虎相搏의 自然戰—全北아마추어拳闘大會 大盛況」(9. 30) 등이다.

- 「南原 郡黨 宣傳部長 生捕—山間部 各署 討匪戰 活潑」, 9. 10  
 「山匪 七名 또 射殺」, 9. 10  
 「30名 愛國者 虐殺한 七寶面 人委長 生捕」, 9. 11  
 「傀儡軍 少佐 韓을 生捕—所謂 南原 內務署長 等を 歷任」, 9. 11  
 「井邑郡 黨 組責 射殺—井邑警察署에 大戰果」, 9. 12  
 「全北 警察의 45日間 戰果 至大—射殺 百三 生捕 十九名」, 9. 14  
 「120名 山匪의 來襲 擊退—壯! 六名의 七七三部隊 政訓員들 手榴彈과 白  
 兵戰 끝에」, 9. 16  
 「勇敢武双한 警官—拳銃으로 山匪 二名 生捕」, 9. 17  
 「全北 警察 日々 戰果」, 9. 17  
 「山匪 三名 射殺—茂州 朴 巡警에 特進」, 9. 21  
 「山匪 射殺만 29名—全北 警察 二次 討匪 進行中」, 9. 23  
 「完州郡黨 巨物級 射殺—高山面 戰鬪隊에 凱歌」, 9. 24  
 「殘匪 射殺만 三名—金 署長 指揮下 戰果 赫々」, 9. 26  
 「山匪 四名 射殺—扶安署 戰鬪隊 기上峰 奇襲 戰果」, 9. 27  
 「射殺 萬五千 生捕 四千名—全北 警察 收復後 二年 戰果 燦爛」, 9. 28

지리산의 빨치산 토벌 작전이 순조롭게 진척되자 군 병력이 철수하고, 그 공백은 경찰력으로 대체되었다. 군의 이동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전방의 전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력의 재배치 조치였으나, 도민들로서는 지리산의 대치 상황이 종료된 징후로 예단할 수도 있었다. 이에 당국은 도민들의 대공 경계심리가 완화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은 경찰의 대공 전략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찰은 공비의 사살·포획 따위의 전과 선양과 함께, 교전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도민들의 대공의식을 고양하는 공작 활동에 열심이었다.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도는 군의 활약상보다 경찰의 성과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 방식은 도민들에게는 경찰의 헌신적인 대민 활동을 선전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안겨주는 한편, 빨치산을 비롯한 인민군의 잔존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대공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 경찰은 지역 언론인의 종군 기사를 통해서 전쟁 담론을 기획하였다. 군과 경찰에서는 소위 '落葉期'를 맞이하여 공비도벌작전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1952년 9월 30일자로 지리산경비사령부를 해체하고, 10월 1일 전라북도 남원에 치안사령부 전방 지휘소(소장 朴相默 警부관)를 설치하였다. 지휘소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경찰국 연락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은 남부군사령부가 위치한 순창의 회문산에서 정읍의 내장산과 입암산, 담양의 추월산, 남원의 지리산을 연결하는 빨치산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중국에는 지리산을 포위하는 형국으로 전개될 작전의 대강을 암시하고 있다. 그에 앞서 전라북도경찰국(국장 金宗元)에서는 『전북일보』 기자의 취재를 지원하였다. 기자는 순창-남원-임실을 경유하고 나서 『淳昌 地區 觀察記』라는 르포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신문사의 취재 의지와 당국의 대공 전략이 맞아떨어진 사례이다.

回文山을 중심으로 준동하는 공비들을 섬멸코저 급변 개시된 작전을 지휘차 金 警察局長은 趙 警부과장과 같이 우리 一行은 지난 1일 淳昌으로 향했다. 도중 태백산, 지구 전투사령부에 들러 李병희 씨와 작전 타합을 한 다음 목적지로 달렸다.

任實을 경유 淳昌에 도착하니 서장은 CP로 작전 지휘차 출동하였으므로 경무주임으로부터 세밀한 상황을 들은 다음 우리 一行보다 앞서 도착한 『대』 경찰 고문관과 『라이후』 잡지 소속인 UN 종군 女記者 『마가렛·백 화이트』와 합류하여 CP로 행했는데 도중 이번의 폭우로 통행치 못하고 다시 인상하여서 통신망으로 이곳에서 작전 지휘하고 있는 崔 보안과장으로부터 작전 상황을 들은 다음 숙소로 들어갔다.

숙소에서 우리 一行은 UN 종군 여기자와 한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기자는 종군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그는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韓國은 세계에 알려졌으나 후방 케릴라전으로 韓國 軍경이 싸우고 있는 것을 아는 까닭에 이것을 자세히 본 다음 二천 七백만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韓國 노래와 日本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우리는 CP를 찾았는데 어마어마한 “바리케이트”로 싸인 CP는 후



방 아닌 전선 기분을 자아냈다.

이곳 ○○지서 주임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은 다음 맹호부대 1대대 李炳壽 대대장으로부터 통신을 통하여 작전 상황과 전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2일만에 사살 2명과 MI 1정 칼빙 1정의 전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지형 관계로 공격 부대만 인상시킨 金 국장은 사병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한편 많은 치사와 간단한 식사로서 격려하여 다음 9일 아침 2시 공격 명령으로 폭우 속에서 행동을 개시하는 사병들의 모습은 사기 왕성하여 믿음직 하였으나 한편 떠러진 옷과 영양 부족으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었다.

1행은 이곳을 떠나 南原으로 출발하는 도중 주민들의 생활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술찌갱이와 콩잎사귀를 먹고 있으며 아무런 위생 시설이 없어 허덕이고 있었다.

당국의 조속한 구호 대책 및 위생 시설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도중 이곳 淳昌은 제외지 생산 원료인 『닥』의 생산지이며 감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하는데 과연 『밭』이 『논』보다 많은 것이었다.

南原에 도착하여 宋 장군과 작전 타합을 한 다음 任實에 들려 南 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1부 공격 부대이면서 방위 부대인 任實郡 『갈담』에 가서 이곳 상황을 들은 다음 작전 계획을 세우고 1행은 귀로에 올랐다.<sup>5)</sup>

르포 기사가 중요한 점은 현장성에 있다.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해당 지역의 경계 태세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외국 잡지 기자의 종군 상황을 통해서, 한국전쟁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짐작할 수 있다. 기사가 취재한 임실, 순창, 남원 지역은 직접적으로 빨치산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산간지대이다. 전주, 이리, 군산 등의 도시민들로서는 주거지와 다른 산간 지역의 교전 상태를 알 턱이 없다. 그런 까닭에 기자의 밀착 취재는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내의 전황을 안내하는 동시에, 전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정보로 기능한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기왕의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르포, 수기 등의 실체적 경험담은 전쟁 담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것들은 전쟁기 지

5) 『전북일보』, 1952. 9. 11

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정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전쟁 담론은 직접적인 전투가 아닌 정훈 공작의 일환으로 생산되기도 했다. 이것은 당국에 의한 공식 활동과 민간인에 의한 비공식 활동으로 이분된다. 먼저 당국에 의한 정훈 공작은 주로 남원에 주둔하고 있던 군 부대에서 주관하였다.<sup>6)</sup> 당시 남부군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송요찬 장군은 대토벌작전을 결행하기에 앞서 『전북일보』 지면을 통해 빨치산과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내통하던 주민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 대상은 지리산 일대에 은복해 있던 빨치산과 부근의 주민들에 한정되었다. 군의 입장에서는 빨치산과의 유격전을 조속히 정리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전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병력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빨치산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군 당국에서는 『전북일보』를 통해서 송 사령관의 강은책을 혼용한 담화문을 「火々の인 歸順 工作 展開—殘餘 山匪에 最後의 溫情」<sup>7)</sup>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역시 앞서 살핀 경찰과 언론의 공동 기획이나 다를 바 없다.

전투 부대의 정훈 활동과 별개로, 특무대는 전도민들을 대상으로 정훈 공작을 시도하였다. 전북 지구 특무대에서는 9월 24일부터 방첩강조주간을 설정하고, 행사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방첩 논문과 표어를 공모하였다. 그 중 논문 공모전에서 李協이 「五列防備에 徹底하라」로 1등, 林洪

6) 이와 관련하여 당시 지리산 일원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군 당국과 빨치산의 문건 자료, 곧 빼라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소위 '빨치산 시인' 김영(본명: 웅)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1929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하여 1949년 9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50년 7월 인민군이 순창에 진입하자 빨치산이 되었다. 1952년 3월 지리산 백무동에서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하던 중, 1958년 전향서를 제출하였다. 김영은 시집 『깃발없이 가자』(정맥, 1988), 수기 『총과 백합꽃』(좋은책, 1989), 수기 『빨치산 철창수첩』(흔겨레, 1990), 시집 『별난 사람 리어카 시인』(흔겨레, 1991), 서간집 『두 하늘에 띄운 그림』(눈, 1991) 등에서 자신의 빨치산 활동을 소상히 보고하였다. 김영의 시세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7) 『전북일보』, 1952. 9. 2

洙가 「防諜 再認識의 緊要性」으로 2등,李형烈이 「國民 防諜을 論함」으로 3등을 차지했다. 이협의 논지는 “共產黨 五列의 執요한 浸透에 對하여 軍센 克服意識을 배養하여야 할 것”<sup>8)</sup>을 촉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논점은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전방에 비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후방의 상황을 이용하여 암약하게 될 간첩 활동을 분쇄하려는 특무대의 정훈 방침에 정확히 부합되었다. 이 작품은 “間諜 行爲의 樣相에 對해서도 지루한 例證을 避하고 簡略히 論及했고 決戰下 五列 防備에 對處할 國民의 精神武裝의 必要性을 該搏한 眼識으로서 重言複言하지 않고 說破함이 攄 印象的이었다”<sup>9)</sup>는 심사평과 함께 『전북일보』에 게재되어 공론화되었다. 또 기성인의 찬조 작품<sup>10)</sup>과 전 『조선중앙일보』 편집국장의 칼럼<sup>11)</sup> 등이 발표된 사실에서 지역의 논객들을 참여시켜 반공의식을 확산시키려는 주최측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 지역의 전쟁 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그것들은 후방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생산되었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현안과제였던 빨치산과 공비의 토벌에 소용되었다. 군과 경찰이 주도한 전쟁 담론은 빨치산을 상대로 한 것과 도민을 상대로 한 것이 달랐다. 이와 같이 전쟁 담론의 생산 경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지역 매체 『전북일보』는 전쟁과 일상적 장면의 조우 상황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이다. 나아가서 당시의 신문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오탈자, 고어의 잔재,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어긋남, 단어의 도치, 일본어의 사용, 한자의 오용, 불분명한 교정 상태, 조야한 편집 등은 도리어 전시의 급박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증언하여 자료로서의 시의성을 보장한다. 또한 그것들은 전쟁 담론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긴장

8) 이 협, 「五列防備에 徹底하라」, 『전북일보』, 1952. 9. 27

9) 『전북일보』, 1952. 9. 24

10) 김영호, 「세치 혀를 잘못 놀리면 스스로 주검길을 催促」 (상, 중, 하), 『전북일보』, 1952. 9. 24-26

11) 최인식, 「빨치산의 末路—韓國에서 그들은 自滅뿐」 (상, 중, 하), 『전북일보』, 1952. 8. 22-24

된 분위기를 확산시켜 소기의 성과를 제고하기에 충분하다.

## 2.2. 전북 지역의 종군문학

1950년 6월 26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간부들은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날 '비상국민선전대'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에서는 국방부 정훈국의 지침을 받아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도문을 제작하였다. 서울이 함락되자 경기도 수원에 피난해 있던 구상, 임궁재, 조영암, 박연희 등은 '종군문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대전에 있던 김광섭, 서정주, 서정태, 조지훈 등은 '문총구국대'를 조직하였다. 이 중에서 서정주와 서정태는 전북 출신이지만, 종군 작가의 범주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정주가 "나와 지훈은 또 정훈국장의 의뢰로 전라북도의 도청과 방송국들을 찾아다니며 스피커를 거둬들이는 일까지 맡아, 전주와 이리와 광주, 목포 등지를 쏘고 다니며 그 일을 하는 한편, 또 그 고장의 방송에도 참가했다"<sup>12)</sup>고 술회한 것처럼, 그의 고향 방문은 종군 활동을 목적인 것이었으므로 종군작가의 범주에서 논해야 타당하다. 서정주는 경상도 인원에서 종군 활동을 하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에 상경하였다. 그 후에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불리해져 1·4후퇴가 벌어지자, 그는 다시 술가하여 남하하였다. 그는 경상도 지역에서 종군하던 중에 고생했기 때문에 일행과 떨어져 다시 전주를 찾게 되었다.

6·25사변이 일어나고 1·4후퇴 때 나는 상처한 몸이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날 수 없었다. 모든 일을 하늘에 맡기고, 집에 머물러 있던 때이다. 어느 날 오후인데, 웬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누구인가 하여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니, 선생님, 저도 모르십니까? 서정주입니다.』

나의 손을 꼭 잡은 미당은 활짝 웃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를 알아차리고

12) 서정주, 『미당 자서전』 2, 민음사, 1994, 244쪽.

반갑게 손을 흔들어 맞이하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한사코 뿌리치면서 빨리 시내로 나가자고 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대문 밖에는 河喜珠라는 사람이 같이 와 있었다.

『자, 회주! 자네가 앞장서게.』

미당은 호탕하게 웃으며 교동의 무슨 기생집으로 나를 안내하였다. 우리 셋은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선생님, 저는 전주에 온 것이 피난 온 것이 아니라, 종군 온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오.』

술이 거나하게 된 미당은 자기와 함께 종군할 것을 종용했으나, 나는 상처한 몸이고,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만 남아서 갈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sup>13)</sup>

전주에 거주하던 김해강의 기억에 의하면, 서정주는 전주에서 활발하게 종군 활동을 한 썸이다. 스스로 '전주에 온 것이 피난 온 것이 아니라, 종군 온 것'이라고 밝혔듯이, 서정주는 지역 작가의 반열에 등재하기 힘들다. 그에게 전주는 “맑은 날엔 밋밋이 빛나고, 바람부는 날엔 또 그것들도 흔들리기도 하고 다가서기도 하는 것”(『全州寓居』)이었을 뿐이다. 그는 전주에 도착하여 지역의 후배시인 이철균과 하회주의 알선으로 전주고등학교의 교사로 취직하였다. 인용문은 서정주가 종군작가의 일원으로 김해강의 종군 참여와 대접을 겸하면서 향리의 선배시인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그는 전주에서 기거하는 동안에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 지부장과 전시연합대학 강사의 직을 겸하였다. 이 무렵에 서정주는 시작품을 많이 발표했다고 하는데<sup>14)</sup>, 아직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기간에 그가 『전북일보』에 발표했던 시 한 편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종군작가로서의 소회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 아이들아 보아라

13) 김해강, 『나의 문학 60년』, 『표현』 제11집, 1986, 5; 최명표 편,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2006, 801-802쪽.

14) 백양촌, 「전북 문단의 개관」, 백양촌수필전집간행위원회, 『백양촌수필전집』, 대광문화사, 1989, 288쪽.

저기가 저 별들이 있던 곳이다  
저 푸른곳이 원통 별들이 있던 곳이다  
별들은 어디 갔는지 아직 보이지않지만은  
햇빛속에 그 있던 자리만은 역력하구나

아이들아  
하늘은 지금 기꺼운 너이들을 비취고 모다  
새로 돌아나는 나무잎들과 흐르는 돌을비친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비친다

그러나 오래잖아 밤이 되면은  
별들은 또다시 돌아나리라  
꽃들은 향기나 서로 서끼고  
나비들은 날개라도 마조 치지만  
서로 보고 부르는 소리도 없이 별들은 우리 우에 돌아나리라  
우리들 어둠에서 건지기위해  
뚜렷이 날날이 돌아나리라

아이들아  
아침설엔 아침을 질기고  
저녁땀 또 그렇게 저녁때를 질기고  
낮 다해 암암던 밤이 오거든  
모두 다 하늘우에 네 별을 찾아라

—서정주, 「낮하늘 아래서」<sup>15)</sup> 전문

이 무렵에 지니고 있던 서정주의 심리적 추이를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다. 그가 아이들을 향해 ‘서로 보고 부르는 소리도 없이 별들은 우리 우에 돌아나리라’고 확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위행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역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전쟁의 분위기를 삭제하고, 대

---

15) 『전북일보』, 1952. 8. 15.

상의 속성에 의탁하여 ‘햇빛속에 그 있던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다. 전운에 덮인 현실 속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 것과 함께 종전의 희망을 행간에 장치하고 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피난기간을 감내할 명분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가 내전한 기간에 정읍의 누나집에 갔다가 조카들의 웃음을 보고 “하여간 이 한나도 서러울 것이 없는 것들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微物하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서빨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서름같은 걸 가르치지말일이다”(『上里果園』)고 다짐하듯, 이 작품에도 후세대가 전쟁통 속에서도 ‘아침설엔 아침을 질기고/저녁땀 또 그렇게 저녁때를 질기고’ 자라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전주를 떠나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중에 “우리는 늘 玉돌같이 호젓이 무쳤다고 생각할 일이다”(『無等を 보며』)고 다짐할 수 있었으리라.

그 외에 전라북도에서 종군 활동을 한 작가는 소설가 정비석과 박영준이다. 그들은 1952년 8월 하순 전라북도에 도착하여 8월 31일 전북일보사 남원지사가 주최하고 773부대가 후원하는 남원의 문학 강연회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이 상황을 『전북일보』는 “『祖國은 하나다!』라는 연제로 鄭飛石 씨의 애국문학가로서 심오한 관점을 드러 열변을 토하였으며, 朴榮濬 씨는 『나를 알자!』라는 제목 밑에 순문학적 견지에서 자아 발견을 중심으로 조국에 바치는 애국심을 양양시키었다”<sup>16)</sup>고 전하고 있다. 두 작가 모두 ‘애국’을 주제로 연설한 것이다. 애국은 전시 중에 극정의 효과를 발휘한다. 애국심은 피아를 선명히 구별하고 독전을 강요하여 불퇴전의 용기와 참전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명분이다. 그것은 군정과 주민 그리고 종군작가에게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심리기제로, 막연한 적개심에 정향성을 부여하여 단일 대오를 형성하도록 견인한다. 이 점이 남원의 강연회에서 두 작가가 애국을 주제로 연설하게 된 이유이다. 정비석은 남원에 유숙하는 동안에 『治安과 民弊—智異山 地區 從軍記』<sup>17)</sup>를

16) 『전북일보』, 1952. 9. 3.

17) 정비석, 『治安과 民弊—智異山 地區 從軍記』, (상, 중, 완), 『전북일보』, 1952. 9.

발표하였다.

그는 民弊 안 끼치기로 有名한 將軍이기도 하였다. 거기 對해서는 市中에 많은 逸話와 美談이 있거니와, 特히 昨年 겨울에 首都師團이 一線에서 智異山 作戰에 參加하게 되었을 때 그는 後方으로 移動하면 隸下將兵들의 民弊가 많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親히 講壇에 올라서 徹底한 政訓教育을 시켰다 한다. 그리하여 師團 本部를 求禮군에 두었지만 上兵들은 한 사람도 市中에 못 내려가게 하여서 市民들은 軍隊가 求禮에 駐屯한다는 事實조차 몰랐다고 한다. 名將이란 다른 게 아니라 敵을 알고, 나를 알고, 나의 部下를 알고, 民意를 알아서 거기에 適應한 指揮를 하면 그 사람이 곧 名將인 것이다. 宋 將軍이 李榮海 少領이 指揮하는 七七三部隊로 하여금 智異山麓에 一大 政訓 攻勢를 取케 하여 나날이 赫々한 戰果를 거두게 하고 있는 것도 民心을 正確히 把握한 證據인 것이다.

敵은 我方의 어느 部隊보다도 七七三部隊를 惡質이라고 宣傳한다는데, 그네들이 惡質이라고 宣傳하는 것은 그만치 그 部隊의 功績이 多大한 것을 敵 스스로가 是認하는 證左이겠다.

討伐作戰은 今年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宋 將軍의 motto이었다. 事實 그의 秘策을 들어보면 共匪 討伐이라는 名譽스럽지 못한 作戰은 今年으로 終幕을 告할 것이 틀림없었다. 冬期 討伐만 끝나면 現在 이 地區의 住民들에게 唯一한 經濟的 負擔이 되고 있는 警察特動隊를 解散시키고 正規 軍隊로서 交替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抱負도 말하였다.

過去에 있어서나 現在에 있어서나 警察 戰鬥隊와 警察特動隊의 功績은 多大한 바 있지만, 그러나 警察特動隊의 經費를 住民들에게 賦課시키는 것은 民心 收拾에 적지 않은 支障을 招來한다는 것이다. 萬若 宋 將軍의 名案이 實施되어 지금 住民들의 唯一한 重荷가 되고 있는 이 負擔만 除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燦爛한 凱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정비석의 보고는 송요찬 장군의 무공을 극구 칭송하면서, 그가 전개하던 작전 계획을 소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느라고 '民心을 正確히 把

10-12.

18) 정비석, 「治安과 民弊—智異山地區 從軍記」(완), 『전북일보』, 1952. 9. 12.



掘한' 군과 달리 주민에 대한 경찰의 민폐를 시비하여 은근히 '종군'작가의 신분을 드러내었다. 당시에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특동대(의경의 후신)를 조직하여 지리산 전투에 투입하였으나, 인력은커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달조차 어려웠다. 그에 따라 특동대의 소요 경비는 지역 주민들에게 할당된 성금으로 충당하였으니, 전란으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마땅하였다. 더욱이 전세가 유리해질수록 주민들의 참여도는 낮아지기 마련이어서, 운영상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자 전주경찰서장은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실은 「特動隊 運營 逢着一道民의 積極的 協力 緊要」(6. 19)와 「民弊警官에 鐵槌」(9. 18)라는 제하의 『전북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거니와, 경찰에 의한 민폐 문제는 상당히 심각했던 듯하다. 정비식과 동행한 박영준의 종군기<sup>19)</sup>도 크게 다르지 않다.

宋 將軍은 討伐 完了 以後의 住民 安定 計劃까지도 짜고 있었다. 討伐 完了 以後의 住民 安定 計劃에 對해서는 稿를 달리하여 紹介할 작정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計劃까지 만들고 있는 만큼 今次 討伐 作戰에 있어서 共匪가 完全히 그림자를 없애고야 말 것만은 確實한 事實일 것 같다.

그러나 나는 最高로 地方民의 協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軍이 愛國의 精神에서 區內의 가장 焦急하고도 重大한 事業을 遂行키 爲하여 地方民을 眞心으로 걱정하듯이 地方民은 그 重大한 任務를 遂行하는 軍에 對하여 汎民的인 協力を 아끼지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共비고 우리의 民族이다. 民族과 民族이 싸우는 마당에서 非協力的인 第三者의 民族이 한 편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의 決定이 지어지지 못할 것은 明白의 理致이기 때문이다.<sup>20)</sup>

19) 박영준, 「共匪와 싸우는 사람들—南部 從軍記」 (1), 『전북일보』, 1952. 9. 16; 「共匪와 싸우는 사람들—南部 從軍記」 (2), 『전북일보』, 1952. 9. 18; 「共匪와 싸우는 사람들—南部 從軍記」 (4), 『전북일보』, 1952. 9. 21; 「共匪와 싸우는 사람들—南部 從軍記」 (완), 『전북일보』, 1952. 9. 26.

20) 박영준, 「共匪와 싸우는 사람들—南部 從軍記」 (완), 『전북일보』, 1952. 9. 26.

박영준은 “가장 적극적으로 종군 활동을 한 작가”<sup>21)</sup>로, 1951년 육군본부 정훈감실 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종군작가단에 참여하였다. 그는 지휘관의 무공을 칭찬하고 나서 ‘地方民은 그 重大한 任務를 遂行하는 軍에 對하여 汎民的인 協力을 아끼지 안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의 논지는 종군작가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 외에 딱히 거론할 만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정비석과 박영준은 위의 글들을 발표하기 전에도 전라북도 지역을 순회한 바 있다. 정비석은 『영화의 예술성—『人生의 黃昏』을 보고』(『전북일보』, 1952. 6. 24)을 발표하였고, 박영준은 인용문의 허두에서 세 번째 방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로 추측컨대, 그들 혹은 그들 일행은 전쟁 기간에 전북 지역을 몇 차례 다녀간 것이 확실하다. 다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시점과 행적을 명료하게 밝힐 수 없다.

### 2.3. 지역 작가들의 문학 활동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도 못 되어 전주는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직면한 전주 시민들이 당황하기는 당연하였다. 시력 60여년간 전주에서 생활한 시인 김해강이 1950년 7월 2일의 일기에서 “하루 지나는 것이 백년이나 천년이나 지나는 것 같고, 무슨 일 하나 손에 잡히는 것 없이 그저 마음이 뒤설레일 뿐”<sup>22)</sup>이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그러도,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일찍이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다량의 작품으로 리얼리즘시단을 선도했던 그가 작품을 발표하기 힘들 만큼, 이 시기의 시단은 전쟁의 영향권에 진입하여 침묵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인민군이 후퇴하고 시가지가 평온을 되찾자, 소량의 시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런 형편 때문에 195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일보』에 발표된 작품들<sup>23)</sup>은 양적으로 풍부한 편이 아니다.

21) 신영덕, 『한국전쟁과 종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102쪽.

22) 김해강시인시비건립추진위원회, 『해강일기초』, 탐진, 1993, 73쪽.

23) “쫓각달 지고 별빛만이 조오는 밤/혼자서 걷는 이길이 외롭기에/그렇게도 사모

이 동안에 발표된 시편들은 전쟁과 무관할 정도로 서정적 경향이 주종

치는 그리움이나/먼-나 산길에 불길이 오르고 가슴을 태우는 하나의 슬픔이 있어 밤이 새도록 끝없이 끝없이 가고픈 이길……//어둠만이 앞을 가로 막은 길가에/값없는 슬픔일랑 차라리 내방치고/전설 잃은 땅을 오래도록 못잊어//오늘밤 부엉이처럼 말없는 몸이 되어/화산처럼 피어오른 열정을 안고 그대 못잊어 밤길을 간다”—金聖淑, 「밤길」, 전문, 『전북일보』, 1952. 7. 9

“第一章 思鄕의밤/소陽江 물소리에/길경꽃 과랑계/피고 지는가//兵幕은 스쳐가는 時間에/새로 歷史가 거쳐 펴려일터인데//南嶽 하늘을/歸蜀道 우는 밤에/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바라 보아도//아득한 구름 밤에/故鄕이 보이겠니”—辛夕汀, 「昭陽江 三章—軍番 八八〇—三六三의 H에게—」, 전문, 『전북일보』, 1952. 8. 21

“第二章 立秋지낸밤/北斗 七星/지곳이 돌아 가는/머언 하늘 아래//총소리 은은히/들린다는 그곳을//나 또한/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꿈길같이 멀고나//昭陽江 물따야 네 웃음소리/들리는듯 들리는듯 立秋지낸밤”—辛夕汀, 「昭陽江 三章—軍番 八八〇—三六三의 H에게—」, 전문, 『전북일보』, 1952. 8. 23

“第三章 江原道드메//江原道도/드멘 거지//昭陽江 이 흐르게//當歸랑 더덕이랑/궁궁이 山參도 나는곳인가//귀일 밥도/石清도//江原道엔있다지……//산나비 날고 꿀벌 잉잉대는 속에/총멘 네 모습이 아프게 그리워라”—辛夕汀, 「昭陽江 三章—軍番 八八〇—三六三의 H에게—」, 전문, 『전북일보』, 1952. 8. 24

“네가 눈 감은 뒤에도/수다한 사람들은 제 눈망을 지닌 사람없이/모두 살아보려고 끝내 살아보려고 악을 쓰는데/열여덟 한자락 심심한 청춘을/三千里 그어디도 부칠곳이 없느냐//형이란 누나는 어찌라고/세차게 솟아오르는 조국을 뒤에 두고/끝내는 가야할 안타까운 길을/제우쳐 부르는 네 아름다운 청춘을/남아서 보내는 우리 서름이 커라”—愚逸, 「風化—學費가 막혀 自決한 X君의 訃를 듣고—」, 전문, 『전북일보』, 1952. 9. 18

“太古부터 겨운 서름을 지냈기에/오늘도限없이 몸부림쳤다//울고 지서도 그지없이/朝夕으로 바다자락에피는/회고 붉은 장미만이 陸地의입술을더듬어 사라지곤한다//華麗한 族屬만이 行列하는龍宮을찾아/銀河같이 殫傷處를 내고간 魚族들//고즈넉이大地의 양가슴에소름이시릴무렵이다”—海樹, 「바다의 鄉愁—英에게—」, 전문, 『전북일보』, 1952. 10. 15)

“昭陽江 기슭에 신나무 붉었다니/戰線엔 가을도 길이 바쁜가//砲彈 오가는속에 山菊花 나부끼고/山桃花 나부끼는속에 네가있고나//머루랑 다래랑 으름도 제철이리/여기도 대추가 불이 붙었어……”—辛夕汀, 「續昭陽江 三章 第一章 戰線의가을에부쳐—인제는싸우는兵丁H에게—」, 전문, 『전북일보』, 1952. 10. 19

“昭陽江 어린羊을 이끌고 계신그대/철이 바뀔때는 더욱 생각키워라//乙支文德李舜臣가시던 험한길에/前塵을 떨으시고 쉬실날이 있으리//싸워서 이기시고 돌아오는 그날엔/새로운 太陽으로 받들어 모시리다”(秋夕사흘전날밤故鄕에서)—辛夕汀, 「續昭陽江 三章 第三章 牧者頌—H를이끄는安秉학님에게—」, 전문, 『전북일보』, 1952. 10. 22

“모처럼 버려진 가을의 鸞窠을/벽돌안의 썩어진 장미에 比할 손가/모진바람 철 빠른 霜雪의 유희를 버서나/고초 끝에 피어난 혈벗은 丘陵의 들菊花여//코발트色

을 이루고 있다. 이 점은 대체적으로 종군시인들이 직접적 여사를 구사하여 전쟁시를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전쟁 기간의 시적 성과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포와 절망의 전투 상황에 직접 참가한 군인으로서 또는 종군작가나 기자로서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기술한 시”<sup>24)</sup>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은 종군작가들의 성취물에 과중한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전쟁문학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는 오류를 초래한다. 그것은 전국토가 전장화되었던 전쟁기의 본질적 국면을 외면하고, 전쟁기의 시를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기술한 시’에 국한시켜 정서의 단일화를 촉구하게 된다. 그런 자세보다 전쟁문학의 연구는 진후방을 가리지 않아야 옳을 터이고, 후방처럼 전투 상황에서 제외된 지역의 문학적 상황까지 아우르려는 섬세한 자세로 접근해야 맞을 것이다. 이 점은 지역문학의 연구가 담당해야 할 과제로, 신석정이 발표한 작품들은 후방의 시적 대응 방식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지븐 帳幕이 너를 더고고/아비규환 석거진 交響樂은 멀어도/땅에서 우러나는 은근한 버레소리는/雜音없는 진정한 祝幅사가 아닐것이나//품고도 품길줄 모르는香氣의 사양/혈벗은 丘陵인정 움길줄 모르는 너의 節操/原始를 인耐하는 野生 그저의힘—아무런 虛공에서 呼吸하는 벗이 여기도있구나//溫室에서 하품하는 妖艷한群像/甘美한 裝飾속에 營養을 받는/季節의 錯誤에도 年齡을 바꾸르줄 모르는/아—그슬픈 기형이여 기백힌 展覽이다//가자 가난한 곳이나마 丘陵의벗을 차져서 가자/마시고 싶은 하늘의 코발트色/心금을 울리는 자그만한 昆蟲의 노래/이들은 모두 흉악한世속을등진 들菊花의벗이리다//짜레은 햇밤도 발을 멈추어 찬양하리라/푸른江물을 소요하는 견牛星도 빛을베프리라/온世!에 한숨을쉬는 種族들이여/淸초한 들菊花의 饗宴에/귀여운 손이 얹이 되려나—柳林 : 「丘陵의 벗」 전문, 『전북일보』, 1952. 12. 1

“눈이 온다/太古 하다//한 千年 예스날에/우린 사는 듯 한데//祖國의 青春을/回復 할 擧戰에//별두곤 빛나는길/그대는 가는구나//피 젖인 하늘아래/나○선 兵丁이 되어//體溫表 같은 山脈을/바라보는 野戰病院//白頭翁 우는속에/處方전을 쓰면서//그대 속삭일 音聲이랑/빛날 눈망울이 그리워라”—辛夕汀, 「빛나는 길—醫師 金永默氏의 壯途에」 전문, 『전북일보』, 1952. 12. 13.

24) 김종윤, 「한국전쟁의 비극적 체험과 문학적 응진력」, 『시적 진실의 인식과 미적 체험』, 황금알, 2009, 126쪽.

가윗날 앞둔달이 지치도록 푸른밤  
戰線에 우른버레 그 소리도 푸르리

昭陽江 물소리며 兵丁들 얘기소리  
그속에 네소리도 역력히 들려오고……

秋夕이 내일 모래 고무신도 사야지만  
네게도 치약이랑 수건도 부쳐야지

—신석정, 『續昭陽江 三章』 ‘第二章 秋夕’<sup>25)</sup> 전문

위 작품에서 보듯이, 신석정은 소양강 연작 6편에서 시조 형식을 차용하여 추석이 다가오자 전선에 있는 피붙이에게 ‘치약이랑 수건도 부쳐야’ 할 걱정에 잠긴 소박한 부정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이 연작에 ‘—軍番 八八〇 - 三六 三의 H에게—’와 ‘—인제는싸우는兵丁H에게—’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전방에서 복무하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정을 나타내었다. 또 『續昭陽江 三章』의 ‘第三章 牧者頌’에 ‘—H를이끄는安秉학님에게—’라는 현사를 붙여서 자식의 상관을 “昭陽江 어린羊을 이끌고 계신그대”로 표현하며 경의를 표하였다 그의 시 『빛나는 길』은 ‘醫師 金永默氏의 壯途에’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야전병원으로 차출되어 전주를 떠나는 한 의사의 무탈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김영묵은 이 무렵 『전북일보』에 수필을 다수 발표한 의사였다. 이처럼 신석정은 후방에 거주하는 시인답게, 전쟁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전방의 자식을 걱정하면서 전세의 추이에 관심을 표하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시화하였다.

이토록 깨끗이 곱게 가는 것을  
지난날 얼마나 焦조했더냐 黠은길위에

首都 白馬의 高地에서 祖國의간頭가

25) 『전북일보』, 1952. 10. 21.

당신네들의 碧血로 지켜져있고

씩어빠진 낡은世代를 부르려 깨우는듯  
늠늠하게 모여진 民族의 울타리여!

亦是올았다 믿어서 좋았어  
올바른 습말에 一毫의 差錯도없이

구김살없는 맑은 가을 하늘아래  
滅敵의 進軍이 이처럼 整然해

남는이들 고마운 눈물에 젖어  
이렇게 곱게 깨끗이 가는구나  
(壯行하는 마당에)

—황호면, 『登程』<sup>26)</sup> 전문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壯行하는 마당에’라는 부제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최초로 징병제도를 실시하여 전선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일보』는 ‘조국방위에挺身하자’(10. 2), ‘앞을 닦고서 入營하자’(10. 3), ‘入營 습狀 發付’(10. 9), ‘兵役 義務 完遂하자’(10. 11), ‘젊은이는 줄지어 軍門으로’(10. 14) 등, 일련의 기사를 통해서 장정들의 입영을 독려했다. 마침내 1952년 10월 16일 전주국민학교 교정에서 전라북도 지역 입영 장정들의 환송식이 개최되었다. 행사는 ‘개회사-국민의례-축사-선서문 낭독-꽃다발 및 손수건 증정(전주여고생)-군가 『行軍의 아침』 합창(전주여고생)-만세삼창-폐회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全北地區兵司令官(朴始昌 대령)은 ‘民族의 꽃이 되어라’는 壯行辭를 낭독하였고, 입영 장정을 대표한 조촌국민학교 교사 金東旭은 ‘祖國 爲해 獻身을 覺悟!’하는 입대 소감을 밝혔다. 당일의 광경을 『전

26) 『전북일보』, 1952. 10. 17.

『전북일보』는 2면의 상단에 「祖國의 부름을 받아 勇躍 壯途에!」라는 제목으로 크게 수록하면서 사진 2컷과 함께 다루었다. 황호면의 시작품은 같은 지면에 발표된 것으로, 말하자면 행사를 기념하는 내용이다. 그가 전라북도 학무국장, 김제군수, 남원군수, 전주시장 등을 역임한 공무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시를 발표하기에 이처럼 적합한 이도 드물었을 터이다. 그는 김해강의 제자로, 牛汀이란 아호를 사용한 시인이다.

한편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전북 지역 작가들의 소설 작품은 분량면에서 지극히 빈약하다. 박상남의 「말대거리」가 콩트인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소설작품은 최일남의 「소화반」<sup>27)</sup>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으나, 무엇보다도 전시 상황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전북일보』는 불과 2면을 발행하고 있었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야 하는 소설의 수록에 망설였을 터이다. 또 신문사의 처지에서는 작품의 고료 지급 문제도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주저하도록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작가들로서도 전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작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 지역과 달리 중군작가들이 장기간 머물지 않은 것도 이 기간의 소설 발표량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을 터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52년 전라북도 작가들의 소설 발표는 곤핍해진 듯하다. 박상남이 단문의 콩트 형식에 의탁하여 전쟁 중의 세태를 포착한 사정도 그 때문이다.

「여보! 대체 말대거리라는 게 어떻게 허는 거래요? 당신두 구경하셨우?」

「왜 난데없이 말대거리 이야기는 묻는 게야?」

「저—말이요 우리가 교동에서 살 때 옆집 미자네 아버지가 얻어서 살다가 갈린 여자 있지 않어요?」

27) 최일남, 「소화반 (1)」(11. 12), 「소화반 (2)」(11. 13), 「소화반 (완)」(11. 15) 이 작품은 1952년 11월 12일에 1회, 11월 13일에 2회가 연재된 뒤 11월 15일에 「(완)」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직 발굴되지 못한 11월 14일자에 3회가 발표되었는지, 아니면 11월 15일자로 완결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2회와 「(완)」의 전후 맥락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은 3회의 누락 혐의를 강조한다.

『그래.』

『그 여자를 오늘 남문거리에서 만났는데 말대가리 놀리는 다를 구경자  
고 그러겠지.』

『그래, 거길 갔더랬나?』

민수는 와락 언성을 높이며 아내를 바라다보았다.

『아—니, 같이 간 게 아니라 글세 그걸 허면 아주 재미가 난다고 구경삼  
아 같이 가자고 그러겠지. 나는 처음에는 말대가리라기에 기마대가 말을 가  
지고 무슨 노름노리라도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걸 드르닝개  
노름이지 않아. 천원을 넣고 마지면 만원을 받는다나. 하여튼 열곱빼기를 준  
다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지금까지 삼십만원을 잃었던대요. 그러고 그 여자  
도 어제 삼만원, 오늘 사천원 그렇게 잃고요.』

『그래, 여편네들까지 그걸 현다?』

이렇게 욱을 퍼붓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 그즈적젠가 민수가 말대가리  
판을 잠깐 디려다 보았을 때 여편네들도 석겨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난  
다.<sup>28)</sup>

박상남은 김해강의 추천으로 『전라일보』 현상소설 공모에 당선되어 문  
단에 등장하였다. 그는 제주도경 경무부장과 전주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소설가이다. 그는 공직 생활 중에도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여  
창작집 『도야지』(神)(1948)과 『漢拏山』(1965)을 상재하였다. 그가 작품집  
을 발간할 당시에 김해강이 「서문」을 써주었다고 하는데, 두 유족 모두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아호를 尙山  
으로 정했던 박상남은 전쟁 기간에 유행했던 ‘말대가리’라는 사행성 놀이  
판에 가산을 탕진하는 얘기를 콩트에 담았다.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는 전북 지역의 사투리를 거나하게 자재로 구사하면서 민중들의 자잘한  
세목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 이런 태도야말로 종군작가들의 작품에서  
산견되는 관념적 요소를 적결하고, 동시대의 일상적 풍경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려는 지역 작가들의 소설적 신념일 터이다.

28) 박상남, 「말대가리」, 『전북일보』, 1952. 7. 19



최일남은 앞서 언급한 소설을 발표할 무렵에 전주에 살고 있었다. 이 점이 그를 서정주와 달리 지역 작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명분이다. 그는 상경하기 전까지 전주에서 여러 문학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문학 활동은 전주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던 1951년 동문들과 '백탑(白塔)' 동인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1953년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이 해에 이병기, 김해강, 신석정 등이 조직한 '전주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12월 그는 『문예』에 단편 「쑥 이야기」가 추천되었다. 최일남은 1954년에 전주고등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풍토(風土)' 동인으로 참가했는데, 일제시대부터 양교는 전주에서 상극관계를 형성하며 사사건건 대립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색적이다. 그의 데뷔작 「쑥 이야기」는 두 모녀의 극심한 가난을 다루고 있고, 「진달래」(『현대문학』, 1957. 7)에서 기준이는 술 재강을 먹고 싶은 할머니를 위해 양조장집 아들과 취을 바꾼다. 그의 추천 완료작 「爬痒」(『현대문학』, 1956. 1)은 전후에 궁핍한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최일남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가난한 날의 삽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의 원형적 모습을 아래의 습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금 밑에서는 이 동네 아이들인 듯싶은 좀무래기 두서넛이 고무신이야 소쿠리등속으로 송사리떼를 잡고 있다.

새까만 나체들이 킁킁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잘만 보면 얼마큼은 재미도 있다.

아까 금방 점심이라도 얻어먹고 나온 게지, 불도 훌쭉하고, 양쪽 어깨쪽지며 가슴패기의 갈빗대가 하나하나 세일 수 있도록 근육이 아니라 뺨다귀가 툭툭 불거져 있는데도, 배만은 장구통처럼 제법 탐스럽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그중 한 놈을 잡아다가 물속에 눕혀 놓고 벼개를 삼고 누웠으면 하였다.

그러면 고무벼개처럼 편할 것이다.

저렇게 배가 불러 가지고도 잘 뛰어 노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꼭 풀뿔의

속가죽처럼 둥글게 생겨서 손으로 통기면 장구소리라도 날 것같이 꽤엇엇하다. 손으로 쓰다듬어 본다면 통보리를 채운 배라서 조금 울퉁불퉁한 감촉을 느낄런지도 몰라— 그는 회곳 닭의 밥통을 생각해 보았다. 닭을 잡아서 두꺼운 똥보를 칼로 가르면 그 속에서 미처 소화도 덜된 생보리가 절반은 퐁과 섞여서 나오는 그 밥통 말이다.

저 아이들의 배도 잘 드는 칼로 살짝 대기만 한대도 저놈의 뱃가죽이 짜악 갈라져서 그 속에서 방금 먹은 보리알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sup>29)</sup>

D여고 영어교사 최인걸은 전주천 상류에서 벌어지는 여름날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말고, 아이들의 블록한 배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것은 아이를 배개 삼고 싶은 욕망으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아이의 뱃속에 들어 있는 소화물을 상상하는 경지로 나아가기도 한다. 인걸의 시선은 전쟁 중의 아이들이 겪는 가난을 고발할 의도로 이동한 것이지만, 작가는 추호의 동정이나 연민을 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한 작법은 그의 나중 작품에서 소위 '출세한 촌놈들'을 회화화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 역시 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전라북도 지역의 시 작품과 동떨어 놓이면서, 후방의 작가들이 전쟁의 참화를 형상화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주 등지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고, 설령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전북 지역에서는 지리산 일대에 한정하여 유격전이 전개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소설과 달리 이 시기에는 수필 부문의 발표량이 현저하다.<sup>30)</sup> 그 중에서

29) 최일남, 「소화반」(2), 『전북일보』, 1952. 11. 13.

30) 1952년 『전북일보』에 발표된 수필 작품은 宋殷燮, 「市場小景」(5. 16), 梁默堂, 「열시 晩餐」(상-하)(5. 17-18), 石佛人, 「眞實한 삶」(5. 20), 金海剛, 「感情의 高空線」(상-하)(5. 21-22), 朴相南, 「畫伯과 양말」(5. 31), 金永默, 「弄春譜 (1-3)」(6. 1-3), 梁默堂, 「후지통 머리」(상-하)(6. 6-7), 金永默, 「물과 공기—續 弄春譜」(상-하)(6. 14-15), 崔龍浩, 「百丈山の 달밤」(6. 21), 朴相南, 「篋자와 光植—回想錄에 서」(6. 25), 石佛人, 「孤獨」(7. 6), 崔龍浩, 「高基里行」(상)(7. 13), 崔龍浩, 「高基里行」(하)(7. 15), 허빈, 「海岸線에서」(하)(8. 7), 權五丁, 「人生과 希望」(8. 10), 學農山人, 「鳴秋草 (1)」(9. 30), 學農山人, 「鳴秋草 (2)」(10. 1), 學農山人, 「鳴秋草 (3)」(10. 2), 學農山人, 「鳴秋草 (4)」(10. 4), 學農山人, 「鳴秋草 (완)」(10. 5), 崔龍浩, 「常綠樹」(10. 19), 陸丘影, 「달팽이 이야기」(10. 23), 韓範錫, 「人間的 眞價」(10. 29),

김해강의 「感情의 高空線」은 '지금으로부터 三年 前—네가 한창 詩를 공부하던 때—그때에 너에게 주려고 썼던 글'이라는 모두 서술을 전체해 보면, 시를 공부하는 '響'이라는 여인에게 쓴 글이다. 최용호는 『전북일보』 남원 주재 기자로서, 한국전쟁 후 남원에서 김상일 등과 '청년예술파'라는 동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수필가이다. 그는 동일 지면에 수필 작품을 여러 편 발표하였는데, 주로 기행문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채롭다. 또 김준태는 『전북일보』 오수지국장이다. 이처럼 발표지와 상관된 필자의 잦은 출현, 동명 작가의 반복적 등장 등은 필자의 부족과 함께 수필의 영역이 미처 개발되지 못한 탓이 상당할 것이다.

그밖에 평론<sup>31)</sup> 부문은 한국문학에 관한 평문은 전혀 없다. 평문이라야 외국문학 전공자와 음악, 무용 등의 평론만 눈에 띈다. 이것은 이 시기에 한국문학사적으로 평론 활동이 활발치 않았던 사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평단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과 전시라서 필자를 섭외하기에 곤란했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또 도내 소재의 대학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조차 평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도 추가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의 『전북일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對譯 唐詩<sup>32)</sup>」라는 란

金駿泰, 「움추린 人間들」(11. 11), 崔龍浩, 「釜山行 (2)」(11. 25), 崔龍浩, 「釜山行 (3)」(11. 26), 崔龍浩, 「釜山行 (4)」(11. 27) 등이다.

31) 1952년 『전북일보』에 발표된 평론은 車壽男, 「女性の 團結을 促함」(6. 12), P生, 「中學生 實力養成誌 『學友』를 읽고」(7. 25), 金秉喆, 「포크너의 文學에 나타난 人間性 問題 (1-3)」(9. 2-4), 愚堂學人, 「李朝實錄 다시 全州로 오다」(9. 5), 南宮鉉, 「國樂 復興의 緊要性」(9. 7), 정인승, 「국문을 애용하자」(10. 9), 影生, 「民族 오페라의 發展 顯著—女性國樂同志社 『반달』을 보고」(10. 18), 黃村人, 「劇協의 進路」(10. 22), 「民族 演劇 文化 座談會」(10. 26), 金秉喆, 「E. A. 포 論考 (상)」(10. 30), 金秉喆, 「E. A. 포 論考 (하)」(11. 1), 辛鎬, 「舞踊 審査를 끝마추고」(12. 12), 柳承國, 「地方 樂團에 稀有의 收穫」(12. 23), 金秉喆, 「포크너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상)」(12. 25) 등이다.

32) 1952년 『전북일보』에 연재된 당시는 「달밤에」(5. 12), 「雨後」(5. 13), 「밤비」(5. 14), 「봄」(5. 16), 「別離」(5. 16), 「상남에서」(5. 23), 「哀歌」(5. 25), 「別離曲」(5. 28), 「江樓」(5. 30), 「淸明」(5. 31), 「王永을 보내며」(6. 1), 「그대를 찾아서」(6. 2), 「勸酒」(6. 3), 「竹里館」(6. 5), 「斷章」(6. 6), 「눈」(6. 7), 「旅愁」(6. 11), 「밤비에 부쳐」(6. 12), 「斷章」(6. 13), 「秦淮에서」(6. 14), 「망산」(6. 15), 「旅中」(6. 17), 「白帝城을 떠나」(6. 18), 「長安을 떠나면서」(6. 21), 「봄밤」(6. 22), 「除夜」(6. 26), 「그대를 보내

이 역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서 연재된 점이다. 추측컨대, 이 란은 한시에 능통한 기자가 지면을 대체 혹은 보강할 겸, 시 란의 부족을 상쇄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 3. 결론

본고는 1952년에 발간된 『전북일보』를 자료로 활용하여 전쟁기의 매체와 문학이 맺고 있는 관련상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전방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반면, 전라북도 지역은 지리산을 위시한 동부 산악 지대를 제외하고 평온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는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전쟁 담론을 유형화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종군작가 위주의 전쟁문학 논의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의 문학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소산이었다.

첫째, 전라북도의 전쟁 담론은 후방이라는 지리적 조건에 알맞게 생산되었다. 그것은 언론, 군, 경찰 등의 움직임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 중의 언론은 불가피하게 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전쟁 담론은 관이 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시기에 전라북도 지역을 방문하여 『전북일보』에 작품을 발표한 종군작가는 서정주, 서정태, 정비석, 박영준이었다. 서정주는 시 1편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두 작가는 군 사령관의 면담 내용을 보고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했다. 서정태는 종군으로 내전한 것이 분명하나, 아직까지 작품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전라북도 지역

며」(6. 27), 「春愁」(6. 28), 「春望」(6. 29), 「路漫々」(7. 1), 「石邑山 속에서」(7. 2), 「楓橋에서」(7. 3), 「斷腸曲」(7. 4), 「秋夜」(7. 5), 「即興」(7. 6), 「病床에서」(7. 8), 「別離」(7. 9), 「旅情」(7. 10), 「餘情」(7. 11), 「梨花」(7. 12), 「山에서」(7. 13), 「秋夜」(7. 15), 「秋夜」(7. 16), 「春愁」(7. 23), 「古別離」(7. 26), 「小曲」(7. 29), 「贈別」(8. 4), 「雜詩」(8. 7), 「斷章」(8. 8), 「春桂問答」(8. 28), 「月下 獨酌」(9. 23), 「邊詞」(9. 24), 「餓春詞」(9. 26), 「張郎이에게 부치는 노래」(9. 27), 「江樓」(10. 3) 등이다.

의 작가들은 전쟁 상황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모든 장르에서 서정적 경향을 추구했다. 그 요인은 이 지역이 후방이라는 사실과 전라북도의 문학사적 경향 등이 결과한 것으로 보인다. 장르상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수필 부문의 작품량이 상당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시가 차지했다. 소설 부문은 작품이 빈약했고, 평론은 거의 전무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한 한국전쟁기에 발행된 『전북일보』와 문학의 관계는 부분적인 허물을 전제하며 출발하였다. 그것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부터 유래한 것인 바, 지역 매체가 온전하게 보관되지 못한 사실은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매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하지 못한 잔여분의 발굴과 함께, 9·28 이후에 속간되다가 『전북일보』로 통합된 『전북시보』와 『태백신문』이 서둘러 발굴되어야 한다. 『전북시보』는 『전북일보』 이전의 전쟁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주에서 발행된 『태백신문』의 '토요시단'을 신석정이 담당했으므로 상당량의 시 작품을 수록했을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 신문은 대한청년단 전라북도지부의 기관지란 점에서, 우익측에 의해 전개된 전쟁 담론의 양상을 고찰하는데도 유용하다. 두 신문이 발굴되고 나면 전라북도 지역의 전쟁문학은 지금보다 더 풍부하게 기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빨치산 논의에서 시사되듯이, 지역문학 연구가 입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서 발행된 매체들과 교차 검토하는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전쟁 담론, 종군문학, 종군작가, 지역 매체, 『전북일보』

<참고 문헌>

기본 자료

『전북일보』, 1952. 5. 12~12. 25

단행본 및 논문

김종윤, 『시적 진실의 인식과 미적 체험』, 황금알, 2009.

김해강, 「나의 문학 60년」, 『표현』 제11집, 1986, 5; 최명표 편, 『김해강시  
전집』, 국학자료원, 2006, 769-802쪽.

김해강시인시비건립추진위원회, 『해강일기초』, 탐진, 1993.

백양촌수필전집간행위원회, 『백양촌수필전집』, 대광문화사, 1989.

박태일, 「목포지역 정훈 매체 『정훈』 연구—한국전쟁기 정훈문학 연구 1」,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8집, 2009. 9, 213-261쪽.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2002.

전라북도, 『전북학연구 (Ⅲ)』, 해안, 1997.

<Abstract>

Media and Literature in the Jeonbuk Area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Jeonbuk Daily』

Choi Myoung-pyo

This paper looked into the related pattern of media and literature during the war by utilizing the 『Jeonbuk Daily』, which was published in 1952. In this period, the front line came to a standstill whereas most

regions of Jeollabuk-do maintained a peaceful state. In awareness of this situation, the paper focused on creating a pattern of the discourse about the war produced in the Jeonbuk area and identifying the bibliographical items of the works of local authors, in detail.

First, discourse about the war in Jeollabuk-do was produced suitably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 namely of being in the rear. Second, war correspondents who announced works in the 『Jeonbuk Daily』 by visiting Jeollabuk-do during this period include Seo Jeong-joo. Third, the authors in Jeollabuk-do pursued a lyrical tendency in all genres rather than accepting the war situation directly. In terms of genre, this area had a considerable amount of works written as essays, followed by poems. There were few works written as novels, and there were almost no critiques.

- Key Words: Discourse about the war, war literature, war correspondents, local media, 『Jeonbuk Daily』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2일 투고되었고, 2월 16일 심사 완료되어 2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